



▲ 한-아세아 푸드 스트리트 성황! 아세안 손맛에 부산이 들썩

2019 한-아세아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아세안 10개국 현지 유명 맛집 셰프를 초청해 직접 요리한 음식을 선보이는 한-아세아 푸드 스트리트가 최근 전포동 놀이마루에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성공의 막을 열었다. 부산/김영찬 기자

## 한미 방위비 3차 회의 이틀째...美전략·지소미아 주시

### 정은보·드하트 두번째 본격 협상...공방 본격화 관측 韓 여론 확인한 드하트, 전략 변화 있을까 주목 받아

한미 외교 당국이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전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열린 첫째날 회의에 이어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

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한미 방위비 협상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3차 회의를 실시한다.  
앞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는 협상 대표 인선이 늦어지면서 기존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총영사가 투입됐던 탓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 열린 '탐색전' 차원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이후 정은보 대표가 처음 등판한 가운데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정은보 대표와 드하트 대표간 두번째 협상인 만큼 양측 간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증액분에서부터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합의까지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미국 측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

을 통해 이를 확인한 드하트 대표의 전략과 태도에 일부 변화가 있었는지도 이번 회의의 관전포인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22일 밤 12시) 직전 열리는 만큼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협상의 연계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돼 미국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10차 SMA 협정은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 단위로 체결돼 올해 연말 만료된다. 타결이 늦어져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상당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서귀성 기자

## 軍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보상법 27일 시행

### 국무회의서 의결...2022년 보상금 지급 내년 초 소음 영향 조사 소음지역 지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3건과 정원 2건을 병합 심사한 국방위원회 대안이며,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공포일은 오는 26일이며 내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1년 단위로 지급되며 전입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배상금이 줄어 들 수 있다.  
배상금 지급기준은 85~90데시벨(WECPNL)의 경우 월 3만원, 90~95

데시벨은 월 4만5000원, 95데시벨 이상은 월 6만원이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을 나타내는 단위다.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1년 1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소음영향도 조사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중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1년 단위로 지급받게 됐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소음영향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소음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광수 기자

## 경기도 농식품박람회, 'G Food Show 2019' 개최

20~23일까지 서울코엑스에서 개최  
다양한 경기도 안심먹거리 선보여

경기도 농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식품박람회 'G Food Show 2019'가 오는 20~23일 서울 코엑스 B1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관하는 G푸드쇼는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경기도의 대표 농식품 박람회다.  
'G Food Show 2019'는 '더 느리게, 더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G푸드쇼의 5대가지인 인증(Guarantee), 세대(Generation), 환경(Green), 우

수상품(Goods), 모임(Garden)을 담은 '5G Life' 컨셉으로 '속도의 빠름이 아닌, 가치 확장의 빠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시를 구성했다.  
인증(Guarantee)은 친환경농산물, 학교, 스마트플로워카페, 지역화폐홍보관 등으로 구성했고, 세대(Generation) 이벤트는 일자별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환경(Green)구역에서는 미세먼저 저감기술 터널, 친환경 수경농업 설

치 등 환경보존의 가치를 알린다. 우수수산물(Goods)구역에서는 50여개 참여농가들이 경기도내 우수 농식품을 홍보 판매한다.  
모임(Garden)구역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귀농귀촌, 공유농업 등의 상담부스가 운영되며, 농촌의 미래, 청년농부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 및 판매 한다.  
그리고 같이농업관, 경기학교급식홍보관, 경기귀농귀촌상담센터, 공유농업지원센터, G마크 홍보관, 청년 농부관, 6차 산업관 등으로 구성

한 주제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푸드쇼 공식 홈페이지(http://www.gfoodshow.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G마크농산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농가에겐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농식품박람회를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박람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교통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일상 속 교통 안전을 책임집니다. 50 30

- 도시부 속도하향 5030확대
-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
- 실시간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한 철도 안전관리

### 자동차 안전을 강화합니다. 자동차 리콜

-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전담
- 자동차 안전도 평가
-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분석

### 미래교통 혁신을 선도합니다. K-CITY

-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베드 운영
- 드론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 첨단자동차 검사기술 연구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
- 운수종사자 양성 등 좋은 일자리 창출





#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원자력진흥위서 확정

## 제8차 원자력진흥위서 경주에 연구기반조성 의결 사업비 8천억원,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탄력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북도는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11.18일)에서 정부의 '미래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이 최종 의결 확정됨으로써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

된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후속 이행조치로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 본 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등 우려도 있었으나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깔끔히 해소되었다. 본 사업은 기본 인프라 및 선도시설 구축에 당초 7,210억원의 사

업비가 투입될 계획이었지만, 원자력 연구원에 따르면 경주지역사업비 등 사업비 규모도 상당부분 늘어나 8천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경주지역 발전전략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 3,000만원의 용역비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로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면서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원자력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경주를 세계 속의 혁신적인 R&D연

구단지로 만들어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경상북도·경주시·원자력연구원이 '혁신 원자력기술 개발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8월에는 경북도, 경주시, 원자력연구원 내 사업 지원조직 TF팀이 각각 구성·운영되어 왔다.

도에서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으로 인해 경주 지역에 초기 연구인력 500여명이 유입되고 최종적으로는 1,000여명의 인력이 지역에 상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여주시-(주)코인즈, '공장 증설 70억 투자협약'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울촌 1산단 9900㎡ 부지서 공사 진행  
합성피그 생산 및 배관검사 로봇제작 생산공장...고용창출 15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코인즈 투자협약(MOU) 체결  
2019. 11. 18. (월) 여주시청 시장실

여주시(시장 권오봉)와 (주)코인즈(대표이사 최명환)가 18일 시청 시장실에서 70억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주)코인즈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주시 울촌 1산단 9900㎡ 부지에 가스배관 내 잔유물 제거장치인 합성피그와 배관검사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이와 함께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소속 직원 전입, 여주시민 채용, 지역물품 우선 구매, 지역기업 우선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한다.

여주시는 이번 투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힘쓴다.

여수/박극규김상면 기자

## 경기도내 김장재료 잦과 파 2건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 303건에 대한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유해미생물 적합여부를 검사한 결과, 잦과 파 등 농산물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79kg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관할 시군에 해당 사실을 긴급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 배추, 마늘, 파 등 농산물 222건과 고춧가루, 잦갈, 식염 등 가공품 81건 등 김장재료 30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

해미생물 등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잦 1건에서는 기준치 0.01 mg/kg의 5배에 달하는 0.05 mg/kg의 다이아지논(살충제성분)이, 파 1건에서는 기준치 0.01mg/kg의 15배에 달하는 0.15mg/kg의 클로피리포스-메틸(살충제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이밖에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농산물 검사 기준 초과 279kg 전량 압류 및 폐기

이나 가공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한 식재료로부터 도민들의 식탁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263개 항목보다 많은 341개 항목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잦갈류 등을 중심으로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도 병행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한 김장재료가 공급되는 일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가정 여전히 많은 만큼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한 것은 물론 고성능 정밀분석기기도 새로 도입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김장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재일 기자

www.huic.co.kr

하남 시민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정기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남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Hanam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huic 하남도시공사

##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성황! 손맛에 부산 들썩

개막 첫날, 주말 온오프라인 티켓 매진  
매일 쿠키라이브소로 아세안 음식 소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며 아세안 10개국 현지 유명 맛집 셰프를 초청해 직접 요리한 음식을 선보이는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가 지난 15일 전포동 놀이마루에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장정의 막을 열었다.

개막 행사는 한·아세안의 희망찬 미래와 번영을 바라는 아이의 오픈닝 멘트로 시작해 황교익 자문위원의 아세안 음식문화 소개와 아세안 대표 셰프 환영식,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사람, 번영,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세안의 등불 점등식' 등으로 진행됐다.

푸드 스트리트는 오는 27일까지 펼쳐진다. 개막 첫날과 주말에 부스 이용객만 5,780명, 한국관은 7,830명, 아세안 마트는 6,500명을 넘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이 찾았다. 당초 평일 1,000인분, 주말 2,000인분으로 준비된 음식이 모두 소진되고, 온라인에서도 주말은 연이어 매진될 만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이어져 특별정상회의와 아세안 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부산/최만식 기자

## "광명시 일자리한마당" 개최

2019 광명시 일자리한마당  
2019. 11. 20. (수) 13:30 - 17:00  
광명시민체육관

- 일자리상담: 취업률 향상하는 시민농구나
- 참여기업: 70개 업체(직접 35개, 간접 35개)
- 주요행사:
  - JOB-88(당일) 광명일자리 나도 한마당(현장행사)
  - 현장채용관 - 이력서 지원
  - 여성유망직업관
  - 지역의 미래를 위한 청년농업인 한마당
  - 기업인생관 및 부업행사 등

주최: 광명시 | 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 광명일자리센터(02-2680-6273)

경기 광명시는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19 광명시 일자리한마당'을 개최한다.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관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일자리한마당은 광명시와 경기도,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행사에는 광명역세권에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를 비롯해 관내 중소기업체와 인근 금천·구로구 등에 있는 중소기업 70개 업체가 참여하며 291명을 채용 예정이다.

이중 35개 업체는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217명을 채용 계획이며, 나머지 35개 업체는 이력서 대행 접수 등을 통해 74명을 간접 채용한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현장참여 구인업체는 적합한 구직자를 채용하고, 구직자는 이력서를 작성하여 희망하는 업체와 면접을 볼 계획이며, 박람회에서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고용 안정정보망(WORK-NET) 등록 후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광명시 일자리박람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명일자리센터 ☎(02-2680-6273)에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미성 기자

## 2019년 제10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안동 도시개발사업,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원안가결 탄력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2건) 및 분과위원회 위임(1건)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①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원안, ②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일부해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원안, ③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분과위원회 위임 먼저,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조합구성)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65,404㎡) 사업이다.

지난 9월,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입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문제 등으로 제심의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이번에도 제심의하게 되었으며, 최종 원안가결 됨으로써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586세대 1,319인)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운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체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며 "도내 서로 다른 지역 여건 및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광명시,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준다

### 우리(友里)노무사 상담센터 운영,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 노무 상담 청소년 노동캠페인, 상담, 교육 실시... 노동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 광명사랑화폐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 도움



경기 광명시는 취약 노동자, 영세 사업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우리(友里)노무사 상담센터 운영, 취약노동자 지원

광명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찾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들을 돕기 위해 “우리노무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으며 7월 상담센터를 설치해 8월부터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2명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노무사 상담센터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리구제를 돕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해 사업장 직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를 위해 노

무 상담과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48건을 상담했으며 영세사업체 사업주 컨설팅도 지원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산재관련 상담으로 노동자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교육, 상담 실시

광명시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노동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 캠페인과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청소년 노동인권캠페인’을 4회 진행했으며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2,744명, 중학교 9개교 3,250명, 고등학교 9개교 1,790명, 지역아동센터 3개교 33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대상별로 내용을 나눠 초·중학생들에게는 노동의 필요성과 노동의 소중함을, 중학생에게는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직업과 노동의 필요성을, 고등학생에게는 일 반고과 특성화를 나누어 노동의 필요성과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노동 권리 및 임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실시한 청소년 노동 상담에서는 172명의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았다. 임금체불이 34건, 부당노동행위 15건, 아르바이트 준비를 위한 상담이 123건이었다.



시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이 안심 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광명사랑화폐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를 지난 4월부터 발행하고 있다.

시는 ‘광명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간담회, 광명사랑화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박람회에서 광명사랑화폐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광명사랑화폐 추진에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박승원 광명시장장이 철산역을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광명사랑화폐 활성화 가두 캠페인’을 벌여 광명사랑화폐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휴대전화 앱에서 구입해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나, 시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NH농협은행 4개소 오프라인 판매처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오프라인 판매처 10개소를 더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광명사랑화폐 76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10월말 현재 약 61억원 발행했다. 광명사랑화폐를 구입하거나 충전하면 1인 월 40만원 범위에서 6%의 추가 충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장상권 지원센터(가칭)를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택시, 버스, 대리운전 업체 등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동 노동자 쉼터도 만들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장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내년에는 광명사랑화폐를 100억으로 확대해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함께 잘사는 광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 시흥 스마트허브 악취저감 지원 늘리고, 전담인력 확충

### 클린에너지센터 음식물, 분뇨, 찌꺼기 시설을 지하화 악취문제 해결하고 친환경 미래도시로 도약 계획 세우

### △ 악취 배출 물질 지하화로 맑은물관리센터 악취 근절해

경기 시흥시가 클린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음식물, 분뇨, 찌꺼기 시설을 지하화 하는 등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내놨다.

시흥시는 그간 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악취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들어서는 대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산단관련 악취관련 업무 전담 인력을 확충하며 야간단속을 실시해 저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흥시는 대기개선로드맵을 확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악취 배출업소에는 실질적인 악취 저감 시설 개선을 도모하고, 다른지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맑은물관리센터의 하수처리장 악취를 개선하고 음식물이나 분뇨 등 악취 배출 물질은 지하화해 근본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 △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점검 강화, 환경협업체 구성 계획도

현재 시흥시 악취배출업체는 756개로 파악되고 있다. 시흥스마트허브 주위에 배공동이 들어서면서 해당 입주 시기인 2018년 악취민원은 한 해 625건에 달했다.

우선 올해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단속을 강화했다. 대기정책과를 만들고 산단 악취 관련 업무를 확대했으며, 악취 지도점검 전담 인력도 늘렸다. 2019년 10월 기준 총 565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이중 41개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시화산단, 남동공단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에서 총 132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개소가 적발됐으며, 7개소는 야간이나 하절기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으로 적발한 건수다.

점검과 위반사례 적발에 그치지 않고 악취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악취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악취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약 92억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시켰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악취저감정책을 내놨다. 우선 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 및 홍보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책특목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 합동 악취해결 정책방안도 수립한다.

경기도와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등과는 환경협업체를 구성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1사 1도 줄이기 사업 등을 통해 악취배출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독려할 뿐 아니라, 염색단지 백연 및 악취저감사업에 40억원,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38개소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악취 전담인력을 배치해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단속을 강화했다.◎



▲ 시흥맑은물관리센터 전경◎

▼ 음식물처리시설은 연간 3만7,237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한다.◎



▼ 시흥맑은물관리센터 내 중력식 농축조. 이중 4만 남기고 다 폐쇄하고, 기계식 농축조를 도입했다.◎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년 전 준공한 이후 시흥시로 운영권을 인계한 환경기초시설로써, 일 27만9000톤 하수처리장과 일 160톤 분뇨처리장이 있으나 시설노후화와 급격한 하수처리량의 증가로 인해 그간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맑은물관리센터 내 하수, 음식물 및 분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복합관리대행 시설 개량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5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악취개선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농축탈수기동을 지하화하고 여과시설을 개량하는 내용의 복합관리대행 시설개량공사를 시작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음식물과 분뇨, 찌꺼기 시설을 지하화 하는 내용의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협상을 완료했다. 클린에너지센터는 맑은물관리센터 주변 악취를 개선하고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증설 필요성 및 노후된 음식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하는 병합 소화시설이다.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하수찌꺼기 240㎡, 음식물 145㎡, 분뇨 60㎡의 용량으로 조성한다.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악취배출량 79.2%~85.3%가량 감소는 물론,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돼 예산절감 효과도 더불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노력 기울여

시흥시는 물환경센터 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을 추진한다. 해당 시설은 연간 37,237톤 가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며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한 퇴비량은 6,583톤에 이른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발효동 등에 탈취효율 개선공사와 퇴비용 악취개선공사, EM분사장치 설치 및 전기공사, 퇴비 반출실 확장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2001년 지어져 18년간 사용된만큼 시설 곳곳이 노후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후속동에 악취방지시설인 탈취탑을 조기설치하고 시설물 밀폐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3년 클린에너지센터 준공 후에는 현재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일원화 할 방침이다.

시흥/이승배 기자



# 기술의 융합, 경남도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출범

## “기술은 스마트하게, 혜택은 딱 맞게” 맞춤형 복지 실현 경남도, SK텔레콤, 등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 민관 활용

경상남도가 19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에스케이(SK)텔레콤(株), 창원시 등 6개 시군, 도내 복지관련 단체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소개, 인공지능 스피커 시연, 조난신고(SOS)사례 공유, 업무협약 체결, 물품(인공지능 스피커)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은 경남도, 에스케이(SK)텔레콤(株), (재)행복한에코폰,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고성군, 하동군 등 9개 기관 간 체결했으며, 경남 도내 스마트 복지 사업 추진 및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보급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남도, 시·군, 에스케이(SK)텔레콤, 행복한에코폰 등 4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민·관 융합 사업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인 김해시를 포함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지역인 창원시(동읍), 의령군(부림면), 고성군(회화면) 등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며, 2020년 이후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구축되면, 서비스 시행 지역 내에서는 홀로 어르신인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악 감상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간단한 말로 집안의 조명을 제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는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주간에 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야간에는 119등으로 연결되어 24시간 긴급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최민식 기자

특히 어르신들의 두뇌 활동 촉진을 위한 인지 강화 게임, 시군 및 복지센터의 공지사항을 안내받는 소식 듣기 기능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탑재돼 어르신들과 행정기관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홀로 어르신 돌봄 체계는 한 명의 생활관리사가 25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남도가 시행하는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는 1명의 돌봄 인력이 100여 명의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복지예산으로 더 많은 홀로 어르신과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게 되고, 지역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케어 매니저, 콜센터 상담원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공유 가치가 창출되고, 향후 민관 융합사업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단지 민간 기업에서 기부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 복지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늘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출범식’은 민관이 서로 협력해 축적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각자가 필요한 방법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남은 민관이 함께 스마트한 기술로 수요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진군, 2020년 본예산 3,751억 원 편성

### 일자리창출, 체류형관광산업 군민소득향상 등 중점 편성

전남 강진군이 2020년 본예산 3,751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377억 원이 증액됐다.

경기둔화 등으로 내국세가 줄어든 것과 그동안 교부세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수원시, 용인시가 교부단체로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중에도, 국·도비사업 증가와 균특이양 사업 등으로 예산규모는 작년에 비해 확대됐다.

군은 역력한 군재정을 감안해 내년도 정부시책사업 분석과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사상 처음으로 5천억원 예산규모로 확대하고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신속집행을 위해 예산시기에 맞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군민소득 창출과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산업 구축 및 농·축·임·수산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불필요한 예산은 대

폭 삭감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를 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극복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세출내역은 국·도비 목적지정 사업비 1,342억 원,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금 560억 원이 편성되어 주민복지향상과 소득 향상을 위해 예산이 쓰이게 된다.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유망고소득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1억 8,000만 원, 고품질 쌀 재배지원 3억 2,000만 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3억 5천만 원, 착한한우 친환경미네랄 블록 공급사업 1억 5,000만 원, 비육우 육량증대 실증 시범사업 3,500만 원, 꼬막·바지락 등 패류 치패대 지원 3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및 축산분야에 7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원을 편성했다.

또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사의재 관광명소화 지역 역량강화 사업 1억 2천만 원, 사의재관광명소화사업 토지매입비 4억 6,800만 원, 조선을 만나 시간 프로젝트 운영 1억 원, 춤

추는 갈대축제 5억 원, 전라병영성 축제 2억 5,000만 원, 강진청자축제 8억 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371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 3억 5,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3억 2,000만 원,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5,100만 원 등 67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일반공공행정 208억 7,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6억 1,600만 원, 교육 24억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371억 900만 원, 환경 272억 200만 원, 사회복지 679억 1,500만 원, 보건 70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114억 4,6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억 5,400만 원, 교통 및 물류 65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7억 7,300만 원 등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경기하강에 따른 교부세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예산확보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확보로 군민의 소득향상과 일자리창출 등 필요한 예산을 중점편성해 재정의 확장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강진/김효관 기자

# 김 전남지사, SOC 기반시설 확충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 최정표 원장을 만나 철도 및 도로 등 전남지역 주요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의 경제성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재조사가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2020년부터 1조 7천55억 원을 들여 107km 구간의 설계 및 공사가 이뤄지게 된다.

김 지사는 또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 건설도 건의했다. 현재 이 일대는 하루 교통량이 약 1만 여 대에 이른다. 장성과 영광, 광주진곡하남간을 연결하는 15km 구간으로 1천80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 3월 완료되면 바로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를 직접 방문해 전라선 KTX 중편, EMU 정비기지과 코레일 관광협력사업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평소 ‘기반시설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야 기업 투자와 관광산업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전남지역 SOC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확보활동에 힘입고 있다.

전남도/김택윤 기자

# 광명시, “시민참여 자치분권 도시” 본격 출발

### 주민자치화·민관협치·행정혁신 ‘시민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경기 광명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 ~ 2022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분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네트워크, 마을활동가, 청년 등 광명시민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자치분권연구소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의의 △ 3개년 분야별·연도별 기본계획 주요내용 설명 △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회 △ 질의응답 및 시민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지난 7월 15일부터 100일간 진행됐으며,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와 발전전망, 광명시 자치분권 기반분석, 외부 전

문가, 공무원, 광명시민의 설문 및 집중면접(FGI) 등을 통한 광명시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2020~2022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은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민주도로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회, 신뢰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민관협치, 자치분권형 행정혁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민자치·지원조직·민관협치·행정혁신 등 주요 사업으로 삼았으며, 이에 대한 15개 과제를 세부 실천과제로 정했다. 세부 실천과제 중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광명형 주민자치회 모델 △ 자치분권대학 명칭 공모 및 효율적 운영방안 △ 동장공모제 등 행정혁신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시민에게 제시하고 공감을 통한 공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검토해 세부추진계획 실행시 반영할 것이며, 시정의 최우선인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미성 기자



# 남원시,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우수기관 선정

### 일반·특별 2개 부문 기관표창 쾌거 전남도내 유일하게 우수기관 선정

전남 남원시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국토교통부 평가는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남원시는 전북도내 유일하게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특히 남원시는 건축행정 일반부문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올해 추가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참신성 특별부문에서도 선정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남원시는 건축민원 처리기간 준수는 물론 건축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건축정책 신뢰도 향상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민 편의의 우주의 건축행정서비스는 더욱 돋보였다.

‘건축민원 비포 서비스 콜’을 제공해 복잡한 인허가를 쉽고 빠르게 사전에 안내하는 등 인허가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 인허가 접수단계부터 시민과의 소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 건축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이남철 기자

# 오거돈 시장, “새로운 2기 조속히 준비하겠다”

### 공무원 중심 혁신, 정무직 역할조정, 시장의 역할변화 등 시정 구상방향

오거돈 부산시장이 민선7기의 새로운 2기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큰 행사들을 마치고 내년 12월부터 곧바로 새로운 진용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운영체제의 변화를 위해 오 시장은 첫째로 “공무원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23년간 고착되어 있던 공무원 사회가 민선7기 출범 이후 놀라도록 변화했다. 계속해서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변화의 두 번째 과제로는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조정”을 꼽았다. 오 시장은 “민선7기 초기에는 변화의 추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무직의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했다. 이제 충분히 공무원 조직이 강하고 유연해졌으니 정무직은 본래의 역할대로 핵심적 의제와 정무적 역할에 집중하며 공

무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정무직의 역할과 중요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정무직의 역할은 시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역할 변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시장은 시장 모든 업무에 무한책임을 갖고 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내년부터 시장은 핵심의제를 결정하고, 그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부시장과 실·국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근 경제부시장과 부산발전연구원(BDI) 원장의 업무공백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더 활발하게 시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시장운영에 흔들림이 없도록, 내년 총선에 출마할 용의가 있는 정무직, 일반직 공무원은 조기에 결단을 내려,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부산/최민식 기자

# 베트남 보건국 대표단, 우수 의료 배우러 방문

### 수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등 시찰 경기도 우수 의료인프라 벤치마킹

경기도는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시 보건국 대표단이 글로벌 의료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도를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응웬 각 히엔(Nguyen Khac Hien) 하노이시 보건국장을 비롯한 보건국 및 하노이 지역 병원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수원아주대학교의료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고양양지병원 등 경기도가 보유한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둘러보며 최신 의료정보시스템(EMR), 응급의료센터, K-Beauty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 보건국 대표단의 방문이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3년 3월 베트남 하노이 시와 보건의료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베트남 하노이시 및 호치민 시 보건부 추천을 받은 의료인 8명이 도를 방문, 도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등 12개국 25개 지역과 보건의료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직감국장은 “베트남 하노이시와 우정을 재확인하고, 의료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료분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의료산업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이 경제, 문화, 관광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전남도, 중국수입박람회서 270만 달러 MOU

###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 체감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인기

전남도는 지난 10일까지 6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등 전남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함께 참가해 270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를 체결하는 등 결실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제1회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최근 한·중 관계 유화적 분위기를 타고 전남 제품 수출 전망을 밝게 해졌다.

이번 박람회에 전남에선 중소 수출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수출상담 225건, 상담실적 640만 달러, MOU 체결액 270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원발전의 천연염, 맛나푸드(주)의 김스낵, ㈜장수식품의 유자도라지배즙, ㈜제이엘비의 천연화장품 등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수

출뿐 아니라 수입에서도 ‘G2국가로서 국제무역의 중심역할을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이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박람회장을 방문했으며 181개 국가와 지역 91만여 명이 박람회를 찾았다.

최근 중국정부가 한국 관광객 제한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되면서 전남지역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9월 기준)보다 48.3% 늘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앞으로 더욱 중화권 수출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전남 명품관’을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전남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은오프라인 판매장을 운영해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하고, 각종 박람회 참가와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농수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가시적인 중화권 수출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김미성 기자



# 민주당 "개인정보보호법 지연...데이터3법 野협조 촉구"

## "北, 북미대화 재개·남북평화 교류 과감한 결단 촉구"

### 이인영 "황교안, 국익 훼손하는 언동 자제하라" 밝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야권을 향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중이라도 처리가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 처리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당초 여야 3당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히, 심사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과거사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후속 본회의 일정도 신속히 합의하길 기대한다"면서 "남은 정기 국회까지 매주 한 번 이상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소부장 특별법,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보호법, 청년기본법 등의 민생입법 처리를 서두르자"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평화 교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대화장에 나와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공개적으로 대화를 촉구했는데 이제 북한 당국이 화답할 차례"라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국익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황 대표가 뜬금 없이 한미동맹 파탄론을 들고 나왔는데 정작 경제 침략을 단행한 일본 정부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주장에는 국익이 없고 민심과도 한창 동떨



어져 있다"며 "이는 보수, 우익의 목소리도 아니고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나 할 주장이라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황 대표의 보수색을 요구하는 한국당 안팎의 시선

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또다시 폭탄 터뜨리기에 나섰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며 "황 대표의 유통기한이 끝난 정쟁정치를 폐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귀성 기자

## 파주시의회 '이달의 칭찬공무원' 표창

경기 파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회계과 박기정 청사건립팀장을 선정했다. 박기정 청사건립팀장은 공공건축물 고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2019년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건축설계공모 방식을 향상시키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를 추진해 조리를 행정복지센터, 운전정보건조소, 운전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사업 및 운영3동 출장민원실 조성, 법원읍행정복지센터 신축, 파주시의회 증축공사를 추진하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

정받아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시의회는 파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해당 업무에서의 본분을 다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매월 의원별로 추천받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손배찬 의장은 "시민들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발굴 선정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수원시의회 봉사단, 따뜻한 봉사활동 지속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봉사단은 지난 18일 오전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김장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에 함께 동참했다.

김장 봉사에는 조명자 의장과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진관, 한원찬, 윤경선, 최인상, 유준숙, 황경희, 조문경 의원 등 9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사랑나눔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추 버무리기와 포장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이 날 담근 약 300포기의 김장김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 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장애인 가정 7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봉사자들께서 배추 속을 넣으면서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도 더해져 김치 맛이 아주 좋을 것 같다"며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다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한국당 "52시간제 보완책? 악효과만...보완입법 나서야"

### 한노위원들 "입법부 무시 정부 다시 보며" "국제경쟁 선제적 대응, 유연근로제 필수"

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전날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 발표와 관련, "입법부를 패싱하는 정부 미봉책은 악효과만 낼 뿐이다. 정부·여당은 선제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보완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 정부의 특기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제도기간 부여 등의 땀집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당초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밀어붙일 때부터 이러한 일들은 예견되어 있었고, 한국당은 즐기차게 속도조절과 보완입법

마련을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밀어붙이기로 일관했고, 경사노위에서 의결되었다는 핑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만을 되풀이하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기업들은 경기 침체의 고통과 함께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는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다"며 "정부가 선심 쓰듯 발표한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확대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연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예측 가능한 기업운영을 위해 입법보완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눈치, 민주노동 눈치 보며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는 버젓이 국회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미봉책을 보완책이라 눈속임하며 모든 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한국당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

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제라도 기업계가 즐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이야기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IT산업과 다양한 직종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늘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논의가 될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시작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정에 민주당 간사가 갑자기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할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기본은 선택적 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 52시간 근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수 기자

### 박지원, 586 퇴진론에 "임종석·이인영·우상호 큰 역할 할 것"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가 촉발한 '586 퇴진론'에 대해 "임종석 전 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을 정치권에서, 또 민주당에서 그대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우상호 의원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586 퇴진론에 대해) 불쾌한 표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임종석 전 실장을) 다시 정치권에 불러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일부 민주당 핵심 의원들에 의하면 임 전 실장은 중구 성동갑으로 가는 것(출마)이 좋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이 (총선 불출마에) 정치적 포석을 깔고 무엇을 던질 게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광수 기자

## 연천군의회, 제250회 제2차정례회 개최



경기 연천군의회는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천군수의 군정연설과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부서별 군정업무보고를 받고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벌였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끝으로 올 한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연천/김영근 기자

#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의정부는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 대상 합동단속 결과

## 경남도 특사경,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0개소 적발 지난 1년간 스테로이드제 5만2천정, 1,7백앰플 이상 판매

경남도가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

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규정은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부터 시행됐으나, 스테로이드 제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2018년 7월 25일에 추가 지정됐다. 추가 지정에 따라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이며, 구체적으로는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

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판매하거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의약품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들 중 A약국은 스테로이드제가 추가 지정되고 1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스테로이드제 52,200정/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하는 등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주사제 60앰플, 한외마약 60,234정/시럽제 1,920㎖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했다.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8,250정/주사제 780앰플, 오·남용 우려 의약품 14,548정, 한외마약 11,000정/시럽제 20,440㎖를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

났다.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C약국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전혀 없음에도 약사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스테로이드제 1,120,000정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10개 약국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은 무의촌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몇몇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약국들과 지역주민들로 이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 용인, 수도시설 동파대비 상황실

용인시는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와 누·단수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15일까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에선 신고가 들어오면 각 지역의 담당 복구대행업체를 즉시

출동시켜 현장을 파악한다. 당장에 필요한 식수마저 없는 곳엔 급수 차량이나 백옥수를 지원하고 신속히 수도관을 녹이는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관이 얼었을 땐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달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 경남도,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전 시군 개최

경남도가 최근,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도내 주요 등산로 18개소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시군 산림부서 담당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1.~12.15.)과 겨울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등산객에 의한 실화, 논·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 발생이 잦은 요즘 날씨 속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용 예코백을 배부하고,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지정화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소방과 시군 산림부서 및 유관기관 상호 협력으로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 시군에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소방공무원 245명, 의용소방대 985명, 시군 관계자 359명 등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소방차량 64대, 시군산불진화차량 56 등 차량 120대가 동원됐다. 이날 밀양 제약산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함께한 허석근 경남 소방본부장은 강원도 산불 사례를 들며,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소방과 유관기관 상호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가을철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복지과장은 “가을철 등산객이 많은 요즘,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산불조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4년간 156건의 산불이 발생해 연평균 43건으로 조사됐지만, 올해는 그 수치를 크게 웃도는 5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이 입산자의 부주의(4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거리 낙엽청소



하안사거리일대에서 1일 환경미화원자청 시민 150여명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최근 하안동 하안사거리 일대에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1일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낙엽청소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환경미화원과 함께 낙엽청소에 나섰다지만 올해는 “내 집 앞 내 골목 내가 즐기”를 확산하고자 시민 150여 명과 함께 낙엽청소에 나섰다. 이날 박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가을철 낙엽이 많이 발생하는 하안동 하안사거리 일대를 깨끗이 청소하고 수거된 낙엽을 대형마대에 담은 후 수거차에 싣는 작업

까지 함께 했다. 함께 거리청소에 나선 한 시민은 “하안동 지역은 아파트가 많아 경비원이나 미화원분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직접 참여하니 낙엽이 금방 쌓이고 비가 와서 빗자루로 쓸기가 너무 힘들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고마움도 느꼈다. 이웃 주민들끼리 마을 청소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많은 낙엽으로 청소가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 전주시 자율방재단, 폭설 대비 ‘이상 무’



폭설 대비 모래주머니 제작  
제설 작업 위한 준비 마쳐

전북 전주시 자율방재단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제작하고 제설도구를 구비하는 등 제설 준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자율방재단은 지난 2008년 창설된 이후 매년 재해 예방, 재해 복구 등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전주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5일부터 모래주머니 제작 작업에 착수해 총 2만포의 모래주머니를 제작했다. 제작된 모래주머니는 완성·덕진구청을 통해 35개 동에 배부됐다.

자율방재단은 또 올겨울 갑작스런 폭설에 대비해 즉각적인 제설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눈삽과 너가래 등 제설도구도 준비했다. 김동현 전주시 자율방재단장은 “자율방재단은 시의 지원을 받아 일선에서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올겨울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문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겨울철 폭설 대비에 힘써준 자율방재단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폭설 이외의 각종 재난도 자율방재단과 함께 대비해 철저를 기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하은 기자

## 감염 우려 낮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무산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발생량 줄이고, 안정적 의료폐기물 처리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9.10.29.)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 △ 병원체 보유자 등에서 배출되는 경우 △ 혈액이 함

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하고, 감염병 환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균증식 등의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보관장소·보관일수)을 준수해야 하며 △ 의료폐기물처럼 냉장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처리방법도 전용 소각장이 아닌 △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장(부산 소재 2곳)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의 인허가, 계약갱신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장과 맺은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도 남아 있다면 계약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배출해도 무방하다. △ 현재의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의료기관과 수집운반업체, 소각장간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 부산시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기관에서의 행정처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향후, 환경부와 협조하여 병원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최만식 기자



# 번개처럼 빠르게 저장하다

##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달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압축화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읽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Dell Alienware System (Dell 17 Alienware 17 R5), OS - Win 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M 5.1.2

X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http://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 '출근길 대란' 명성운수 파업 왜?... 경기도 고양시 '당혹'

## 노사 '임금인상안' 대립 첨예...장기화 우려 명성운수, 임단협 문제로 파업하기는 처음

경기 고양지역의 버스회사인 명성운수가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인상안을 놓고 노사간의 의견차가 커 자칫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명성운수 노조는 이날 오전 4시에 사측과의 최종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광역 9개 노선과 좌석 5개 노선, 시내버스 6개 노선 등 총 20개 노선의 차량 340대가 일제히 운행을 멈췄다.

해당 노선은 광역버스인 M71 29·1000·1100·1900·3300·9700·1082·1500번과 좌석버스인 830·870·871·108·921번, 시내버스

인 72·77·82·66·11·999번이다.

앞서 명성운수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측과 9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이달 2일과 18일 2차례의 조정회의마저도 결렬됐다.

특히 '임금인상액'을 놓고 6개월간 협의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월 37만원의 인상을, 사측은 월 10만원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하루 2교대제로 변경할 것과 단근일수를 13일에서 12일

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와 단근일수 유지(13일)를 고집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노조 만 64세, 사측 만 62세)과 무사고수당 지급기준을 높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일간 전체 560명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

당초 경기도와 고양시는 '여론 부담으로 실제 파업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이날 전격 파업에 돌입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명성운수 노조는 과거 한 차례도 임금협상을 이유로 파업을 한 사례가 없어 파업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파업이 시작되자 급히 20대의 전세버스를 고양지역 주요 지점에 투

입했지만 시 관련부서에는 아침부터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명성운수의 경우 파업에 돌입한 20개 노선 중 18개 노선이 서울 등 타 지역과 연결된 탓에 출퇴근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 이날 많은 시민들의 지각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명성운수 노조는 이날 오전 일산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준수' 등을 요구했다.

신종오 노조 위원장은 "버스업종의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사측은 생활임금 보장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과 인상된 요금은 독차지하며 그 피해와 희생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유야 어찌됐든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 경남도 '새내기 소방관' 소방교육훈련장 입고



신입소방사 175명, 16주간 교육훈련 도내 18개 일선소방서 배치 업무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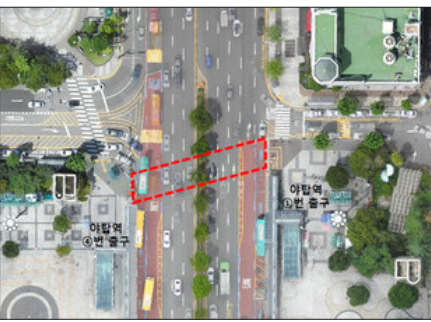
장기 숙습 △ 소방관서 현장 실습이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 수료 후 내년 3월부터 정식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돼 도내 18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로 배치되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예방 및 대응분야에서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윤영찬 경남도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신입 소방사반 교육과정을 통해 어떤 재난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대응 능력을 갖추고, 일반 공직자와는 다른 숭고한 직업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16주간 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소방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 성남, 성남대로에 횡단보도 설치 예정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역 광장 앞 왕복 10차선 성남대로에 오는 12월 말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야탑역 1번 출구와 대로 건너편 4번 출구를 잇는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해 분당경찰서와 최근 협의를 마쳤다.

이곳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길이 40m, 폭 8m 규모다.

해당 지역은 성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변화가 형성돼 있고 야탑역 광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유동 인구가 하루 5만명을 넘는다.

평상시엔 야탑역 지하보도를 통해 성남대로를 건너다닐 수 있지만,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 대에는 지하보도가 폐쇄돼 인근 횡단보도를 통해 400m 이상 돌아가야 한다.

성남시는 이런 보행자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에 나서게 됐다.

성남/남시현 기자

## 경북도, 2019 겨울철 폭설대응 현장 훈련 실시

봉화군과 합동훈련 통해 민간군 협업 신속한 인명구조, 원활한 교통소통나서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시도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일 봉화군 은어송이테마공원내 도로에서 '2019 겨울철 폭설대응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대규모 폭설로 통행 불능 등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간 신속한 공조를 통한 조기 교통소통 대책 마련을 위해 경북도, 봉화군, 영주소방서, 봉화경찰서, 육군 제3260부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재확인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각종 제설차량, 견인차, 구급차 등 2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설정된 폭설상황에 따른 상황전파, 인명구조, 제설작업, 사고차량의 구조, 차량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유도를 실시했으며, 군부대와 자율방재단을 동원하여 산간마을 진입로 제설작업을 하는 등 실제와 같은 긴장감 속에서 훈련이 이뤄졌다.

훈련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훈련에서 폭설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훈련과



정에서 노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겨울철 폭설대응에 상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폭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 PEB(Pre-Engineered Building) 구조물 등 적설취약구조물 294개소 특별관리, 민·관·군 상호 협력체계 구축, 제설장비 4,146대, 제설자재 7,400여톤 사전확보, 고갯길·교량·램프 등 제설 취약구간 157개소를 지정하고 강설과 동시에 제설이 가능하도록 전진기차 43개소를 설치하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완료했다.

최용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기후 특성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습 폭설 등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연재난이 발생할 시 골든타임 내 어떻게 대응하고 복구하는지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민·관·군 협업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 등 폭설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영주소방서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홍보

농산물 소각 때는 사전 신고해야

경북도 영주소방서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지난 10월 31일 개정·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 화재로 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만 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차 1만3,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을 차지했다. 특히 농부산물 소각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낱짚을 지정해 산불감시요원의 감시 하에 마을별 공동소각을 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행위는 소방력을 낭비시키고,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다수의 인력과 소방차량이 출동해야 하는 만큼 소방관들의 업무 가중과 예산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윤영돈 서장은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요즘 지역 내 농부산물과 논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소각 전 불 피움 사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주/정승초 기자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과거의 성공이 성적이었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 광명, “기후에너지 포럼” 시민들과 기후대응 방안 모색



기 비상행동 선포 사례 및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기업, 행정 등 시민대표들의 토론문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들별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까”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주요의견은 △ 학교 내 기후위기 교육, 동아리 활동 장려, UCC 제작,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후위기 및 에너지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필요 △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자전거 타기 활성화 △ 1회용품 사용자체, 과대포장 금지, 텀블러 사용, 멀티탭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 제도적으로 건물 신축 시 기후와 에너지를 반영할 설계 필요 △ 옥상녹화, 대중교통 이용, 정차인에게 기후위기 공약 요청 △ 담배갑처럼 기후위기 그림 및 문구 삽입, LED 가로등 교체, 스마트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기후위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포럼 후 청소년들과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응 방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청소년 기후에너지 포럼, 학부모 기후에너지포럼, 광명시민 기후에너지포럼 총 3회에 걸쳐 개최된 기후에너지포럼은 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과 사전 기획회의 등을 통해 협업으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에너지 포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시민에게 감사드리고, 기후위기에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같이 포럼 등 과정을 통해 행정, 정치, 시민이 2030년까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함께 마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자원이 아닌 필수이다.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내년엔 기후에너지 센터 개소 및 학교, 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및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시민교육과 권역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인식 변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기업, 행정 등 모든 분야 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과 기획회의 등 통해 협업

광명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민 기후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광명시민 기후에너지포럼은 지난 8월 31일 청소년 기후에너지포럼 과 지난 10월 18일 학부모 기후에너지 포럼에 이어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기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한 기후에너지 포럼이었다.

포럼에서는 이윤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기후와 에너지 위기를 대를 살아 가는 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윤진 연구원은 전 세계 기후위

## 경기도, 방치건축물 정비로 국토부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전성 등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경기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평가에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 12개 지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선정을 전달받았으며, 별도의 시상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 선정은 도 단위 광역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선정됐고, 도내 기초지자체로는 용인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우수 기관 선정에 앞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도 도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4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할과 동시에 정비 T/F 운영을 통해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평택시 ‘통통통 놀이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1호 공공어린이놀이터 개장 라제 주변 큰 나무와 야자매트 연결되어

평택시는 최근 아동의 놀권리 일환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아동이 안전한 원형8종 ‘통통통 놀이터’를 개장했다. 통통통 놀이터는 ‘자연친화’기조를 중심으로 주변 큰 나무와 야자매트가 연결된 친환경 나무소재 조합 놀이대를 설치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페타이어 포장을 모두 걷어내고 창의적

이고 개방적인 놀이감인 모래놀이공간으로 교체해 아이들이 천연질감을 느끼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정장선 시장은 “2022년까지 매년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자연친화적 놀이공간으로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놀이공간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동원 기자

## 하남시, 시민 공공텃밭 자투리 땅 활용해



“생산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김장용 배추 600포기, 무 250개 수확

하남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민 공공텃밭 자투리땅을 활용해 재배한 친환경 채소를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 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금년 한 해 동안 기부한 채소는 시민에게 분양하고 남은 자투리 땅을 활용해 재배한 채소로 김장용 배추 600포기, 무 250개를 비롯해 어린이가 갑자 깨기 농촌체험을 통한 갑자 240kg를 포함 약 2톤에 이른다.

현재 시민 공공텃밭은 미사 공공텃밭을 비롯해 3개소/1,193구획이 분양·운영 중이며 금년도 분양 시 4,002명이 신청, 2,809명이 탈락하

하남/남시현 기자

## 시흥시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오이도의 빨간선물 Season3 바닷길산타걷기 참가자 모집’

시흥시는 오는 12월 7일과 8일 이틀간 오이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오이도의 빨간선물 바닷길 산타걷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이도의 빨간선물 바닷길 산타걷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시흥블루웨이 걷기여행’의 마지막 여행이다.

오이도의 바닷길을 따라 걸으며 겨울의 풍경을 만끽하고 시흥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텝프투어와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미션수행 걷기 프

로그램이다. 참가자에게는 산타키트가 제공되며 신나는 노래에 맞춰 준비운동 후 지정별 자율 코스로 진행된다.

가족이 함께 자유롭게 오이도를 둘러보며 눈꽃머핀 만들기, 오이도 기념품만들기 등 체험과 완주 후 캐럴공연을 즐기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닷길 산타 걷기는 12월 7일 이틀간 진행되며 사전접수는 시흥블루웨이걷기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8일부터 11월 29까지 선착순 300명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당 인원제한은 없으며 참가비는 1인당 3000원이다.

시흥/이승배 기자

## 고양국제꽃박람회, 튜립 구근 58만개 식재



호수공원과 원당화훼단지 일원 꽃길 만들어 축제 분위기 조성해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튜립 58만개를 호수공원과 원당화훼단지 일원에 식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심어지는 튜립은 총 12종 58만 개로 2019년 꽃박람회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량이다. 호수공원에 28만 개, 원당화훼단지에 30만 개가 식재되어 화려하고 아름다운 튜립정원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내년 처음으로 원당화훼단지 5개 구역 3,500㎡ 면적에 튜립 꽃길을 만들어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튜립 외에도 유채와 청보리밭, 다양

한 포도존 등이 함께 연출되어 호수공원은 다른 매력의 꽃 세상이 펼쳐진다.

꽃박람회 재단은 11월 말까지 튜립 구근 식재를 완료하고 내년 4월 박람회 개막에 맞춰 개화할 수 있도록 차광막 설치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박동길 대표이사는 “매년 관람객들의 가장 사랑받는 정원으로 손꼽히는 튜립정원의 규모를 원당화훼단지까지 대폭 확대해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관람객, 시민, 화훼 농가가 모두 만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 파주 교하조리도서관, ‘가상동화체험관’ 공간 조성

어린이들 가상현실 공간서 동화속 주인공 돼 신나는 모험과 감성 충전

파주시는 어린이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동화 속 주인공이 돼 신나는 모험과 감성을 충전할 수 있도록 ‘가상동화체험관’을 교하도서관과 조리도서관에 각각 조성했다.

가상동화체험관은 사업비 8천4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조성 완료했으며 12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5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로 1회당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동화구연 전문 강사가

배치된다. 평일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단체 위주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개인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매년 동화콘텐츠클럽 2~3편씩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종대왕과 시간도둑, 오즈의 마법사 등 30여 편의 동화 콘텐츠클럽이 제공되었다.

이번에 조성된 가상동화체험관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오리만 만나던 동화를 살아 움직이는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상상력을 자극하고 풍부한 감성과 정서함양을 기대하며 건전한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김성태 기자

## 고양페이, 가까운 농협 어디에서나 가입 가능

업무협약 통해 총 57곳 농협지점서 중장년층과 교통이 불편 시민 이용

고양시 지역화폐 ‘고양페이’를 오는 12월 중에는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에서도 현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양시는 지난 15일 지역농협 본점 및 지점 관계자, 지역화폐 운영대행업체와 한자리에 모여 고양페이 현장 판매처 확대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기존 고양페이는 관내 농협중앙회에서만 현장 가입이 가능해 시민들

이 방문해 가입하기에 다소 불편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농협까지 추가로 확대돼 총 57곳의 농협 지점에서 고양페이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이번 현장 판매처 확대에 협조해주신 6개의 지역농협 본점과 38개의 지점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중장년층과 교통이 불편해 농협중앙회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고양페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 의정부시 회룡배 전국테니스 대회 개최식

1천2백명 참가. 같고 닦은 기량 선보

의정부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의정부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2019 의정부시 회룡배 전국테니스 대회’의 개최식이 지난 16일 호원실내 테니스장에서 임원 및 참가선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최식은 의정부시체육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환영사를 비롯해 정성민 의정부시테니스협회장의 대회사, 참석 내빈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테니스협회 관계자뿐

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전국 15개 시·도 테니스 동호인 선수 1,2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체급별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종목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를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의정부에서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치르길 바란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안성시, 2019년 독립유공자 26명 본인과 유족에게 포상

###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 통해 안성 출신자·활동자 316명 독립운동가 발굴, 보훈처에 76명 명단 제출

안성시가 2019년 독립유공자로 26명이 포상됐다고 19일 밝혔다. 안성시는 안성의 독립유공자가 1962년 첫 포상된 이래 지난 17일 제80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훈된 독립유공자까지 총 237명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3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136명의 독립유공자 포상명단을 발표했다. 공적심사를 거친 독립유공자들은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이 본인과 유족에게 수여된다. 안성의 독립유공자는 9명이 포함됐다.

또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에 포상된 안성의 독립유공자는 3.1절 계기 15명, 광복절 계기 2명을 포함해 26명이다.

안성시는 2016년부터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을 통해 안성 출신자 및 활동자 등 모두 316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했고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발굴에 주안점을 둔 결과 삼죽면의 범죄인명부 등 직접적으로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됐다.

또한 판결문, 신문조사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3.1운동 피살자명부, 신문기사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DB화 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을 정리해

국가보훈처에 제공했고 2018년에 독립유공자 포상 가능 대상자 76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이중 26명이 공개검증을 거쳐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으며 모두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확인됐다.

특히 3.1운동 당시 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등 일제식민통치기관을 완전히 몰아내 '이들간의 해방'을 이뤄내는 거센 만세운동을 펼쳐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 알려진 양성면에서 18명의 포상자가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안성3.1운동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범죄인명부가 공적심사 자료로 인정되고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의 완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안성의 독립운동가 김희식 선생을 주요 포상자로 선정했다. 김희식 선생은 평범한 농민 출신으로 1919년 4월 1일 양성·원곡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후 징역 5년의 중형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 국가보훈처는 공적 사항을 설명하면서 안성시가 포상을 신청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대표적 인 사례로 꼽았다.

이로써 그간 독립운동 인물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공언해 왔던 안성시의 노력이 큰 결실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며 학술적으로 검증한 점이 독립유공자 포상에 결정적 역



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훈·포상이 이루어진 인원은 현재까지 총 15,825명이다. 안성은 이번 포상으로 독립장 8명, 애국장 56명, 애족장 125명, 건국포장 8명, 대통령표창 40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하면서 한국독립운동사의 대표적인 지역임을 다시금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안성의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그분들이 겪은 고통을 다시 상기시키게 됐다"며 지속적인 독립운동

인물 발굴과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을 통해 미서훈된 독립운동가들의 명예회복과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성시는 2020년부터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매월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알리고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체험을 통해 안성지역 독립운동가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포상자의 공적내용은 안성3.1운동기념관과 '안성 독립운동 인물자료관'에서 확인할 있다.

안성/남시현 기자

##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담벼락이 화사해졌다

### 호매실 사랑하는 사람 모임 회원 1호점에 재능기부로 벽화 선물해

호매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최근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재능기부로 벽화를 선물했다.

김효영 벽화작가를 비롯한 호사모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17명이 함께 센터 입구 쪽 벽에 그림을 그렸다. 벽화 재료는 '호매실 16단지 임차인대표회'와 '호사모'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한 후원금 100여 만 원으로 준비했다.

활동에 참여한 박재철 임차인대표회장은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가

맛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아이들이 벽화를 보면서 돌봄센터를 더 친근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벽화를 그렸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문을 연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 심리상담,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 경기대 서양화·미술경영학과 학생들이 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특강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달 28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격정 인형 만들기, 퍼러디 작품 만들기, TV 속 광고 패아트로 표현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원/김재일 기자

## 오산시 '건강한 간식만들기' 조리실습 운영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 임산부와 영유아 올바른 식습관

오산시 보건소는 오는 26일까지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보충식품을 활용한 조리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미만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과, 월 2회의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해 빈혈, 저체중, 성장부

진 등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강한 간식만들기' 조리실습 프로그램은 닭가슴살을 이용해 다양하면서 쉽고 영양도 좋은 '치아바타 샌드위치'와 '백화과청'을 만들어 조리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주는 실습을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영양교육 효과를 높이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과 기초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용범 기자

## 광명 지속가능발전, 시민과 함께 첫걸음 내딛어

### 시민혁신서지속가능광명,사람을 잇다 시민사회활동가,기업인,공무원등한자리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오는 22일 저녁 7시 광명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광명,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보고대회는 사회, 환경,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인, 광명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광명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의 강연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마지막 순서에서는 각 분야

별 시민대표의 다짐과 포부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 국가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를 나타내는 카드섹션과 청소년 댄스동아리 플라리스, 시민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어우러져 시민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광명시는 이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시민참여단과 공무원TF팀을 구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비전, 이행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향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참여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날 카드섹션지 뒷면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와 시민참여단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정책개발담당관 지



속가능발전팀(02-2680-25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미성 기자

## 파주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파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12월 3일부터 2020년 제1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 방법은 12월 3일부터 모집 분야별 인터넷 선착순으로 파주시 평생교육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타지역 주민은 모집 시작 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건강교육, 취미교육, 직업교육, 특별교육, 컴퓨터교육, 외국어교육, 공예기타교육, 교양무료교육 등 8개로 댄스스포츠 초·중급, 노래교실, 한식조리사, 헤어, 컴퓨터 기초 등 10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접수 첫날인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 수강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평생학습관 로비에서 자원봉사자가 인터넷 접수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원한다.

파주/김성태 기자

## 파주시 저소득층 아동들과 도예체험 봉사활동

### 교하동사회보장팀-대진씨앤씨 봉사단 아동 15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멘토링

파주시 교하동 사회보장팀의체와 ㈜대진씨앤씨 임직원봉사단은 지난 16일 오후에 위치한 '토루공방'에서 교하동 관내 저소득층 아동 15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이들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 한편 특색 있는 체험활동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사회적 증진을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진씨앤씨 임직원봉사단은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위한 일일 자원

봉사자로 참여했고 관내 저소득 아동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을 뿐 아니라 참여 아동들에게 햄버거쿠폰 등을 전달했다.

이날 교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관내 기업체인 ㈜대진씨앤씨 임직원봉사단은 어린이들의 멘토 역할로 도예 전문가로부터 도자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함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석 ㈜대진씨앤씨 대표는 "문화·여가활동의 기회가 적은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 서다 보다 걷다

## 꼭 기억하세요!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봅니다**

**걷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넵니다**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캠페인

도로교통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제는 배터리 산업이다! 차세대 배터리 포항 포럼 열려

###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토론 펼쳐 중기부 규제특구기획단, 중국GEM사 기술연구원장 참석

경북도는 포항시(시장 이강덕)와 함께 1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 포항 포럼 2019'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으로 꾸며졌다.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의 '배터리, 미래의 산업을 열다'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손준수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리사이클링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의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경북의 규제자유특구가 고려해야 할 기술적, 정책적 부분에 대해 제언

했다.

또한 에코프로와 기술합작한 중국 GEM사의 쑹쿤(张坤) 기술연구원장은 GEM사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소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성낙영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 총괄과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성낙영 과장은 지역혁신성장의 주체는 분별 지역이라면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 기실증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사용연한이 도래한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실증하여 산업화를 도모하는 특구로 2019~2023까지 4년간 추진된다.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배터리'라는 신성장산업 육성과 상생형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신규 투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장은 "경북도의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지

역혁신성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면서 "포항에 지정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같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배터리 산업을 철강산업이 그랬듯이 지역산업의 한축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이제는 탈삼갑이다! 새로운 감 시장 개척 머리 맞대

### 상주감연구소, 탈삼갑 유통기간 연장 일본, 유럽 등 해외시장서 대량 유통

경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는 18일 청도군 매전면 청도반시 재배농가에서 청도반시를 이용한 탈삼갑 유통기간 연장 기술 현장평가를 할 예정이다.

탈삼갑이란 얇은 탈(脫), 뽕을 삼(澁)이란 뜻을 가진 한자로 뽕은맛을 얇은 감으로 기존의 단감과 다른 식감을 가진 뽕은맛을 얇은 생감으로 소비되고 있다.

국내 단감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40대 이하의 소비자들은 사한감, 우린감을 먹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 탈삼갑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사한감, 우린감이라는 표현으로 쌀북에 며칠, 소금물에 며칠 두어 뽕은맛을 없애 가정에서 감을 먹는 방법이 5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농도이산화탄소탈삼갑(CTSD)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되는 탈삼갑이 전세계 감 시장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다.

가까이는 일본, 중국에서 대량 유통이 되고 있고 유럽은 스페인에서 뽕은감을 탈삼하여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5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하고 주요 수출국가는 유럽, 미국, 중앙아시아이다.

기준에 우리나라에서도 탈삼기술 보급과 현장적용이 많이 되어져왔지만 비교적 짧은 유통기간(7일)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생산량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상주감연구소에서는 청도반시 탈삼갑에 1-MCP(일염시피) 처리하여 기존의 짧은 유통기간보다 21일 이상 연장하는 유통기간 연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1-MCP(1-메틸사이클로프로펜 (1-Methylcyclopropene)) : 농산물 선도유지제

청도반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씨가 없는 뽕은감 품종으로 탈삼이 잘되며 1-MCP 효과가 우수한 품종이다.

이날 평가회에서 청도반시 생산 농가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탈삼갑 유통기간 연장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스페인 대표 품종인 로조브릴란트, 망고감(따먹는 감) 등 청도반시 이외에 다양한 품종의 시장 가능성과 일본, 스페인과 같이 수출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권태영 경북농업기술원 연구개발 국장은 "전국에서 감 재배 50%를 차지하는 경북은 주로 뽕은감을 생산하고, 1차 가공으로 꺾감과 감말랭이를 생산, 유통을 하고 있다"며 "청도반시 탈삼갑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경북지역 감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전예약제

영주시가 18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공정선(선별)기와 팽공탈피기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시는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공정선(선별)기, 팽공탈피기 임대 수요를 분산해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농기계 사용의 무리한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장을 사전 방지하는 등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사전예약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공정선(선별), 팽공탈피기 임대사용을 위한 대기시간을 없애고 임대사용 순번으로 인한 농업인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정선(선별)·팽공탈피기 사전 신청은 해당 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본소(문수면 중릉로 516)는 공정선기 8대(부식대 3대, 대원공 3대, 검은공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부본소는 공정선기 3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영주/정승초 기자

# 2019년 마을건강요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문경, 읍면 마을건강지킴이 대상 '우리마을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문경시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건강지킴이로 봉사하고 있는 마을건강요원 8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 중 마을건강요원을 지정해 보건사업 대상자 발굴, 감염병 예방, 보건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교육 주요 내용은 '보건사업에서 건강지도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전문의 홍남수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보건지식을 습득케 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수꾼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어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마을건강요원이 우리가족·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건강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정승초 기자

# 지역화폐 '영주사랑상품권' 30억원 추가 발행



### 누계 발행액 90억원, 1만원권 추가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톡톡'

영주시가 발행한 '영주사랑상품권'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추가 발행에 나섰다.

영주시는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동시에 발행한 지류식과 모바일식 영주사랑상품권 60억 원이 4개월여 만에 지류식 상품권 24억 원(30% 원의 80%)이 판매됨에 따라 1만 원권 상품권 30억 원을 추가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품권의 조기소진은 추석 명절과 풍기인삼축제 기간 중 영주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0대 특별행진 이벤트가 큰 힘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목표 2000여 개 중 1910개소가 모집되어 95.5%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며 따라 지역경제에 선순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영주사랑 상품권은 영주시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

영주/정승초 기자

# 경북도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역정착 마련

### 도내 150개 사회복지시설장 통해 안정적 복지일자리 창출방안 협의

경북도는 18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복지 행복도우미'가 채용된 시설장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 청년들의 도시 유출을 방지하고 질 좋은 복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장의 현장상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은 행안

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의 청년 중 사회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225명을 공개모집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과 업무 경감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근무한 자에 대해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2개월간 월 200만원의 인건비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청년 일자리는 국가적인 이슈다. 실질적 청년 취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영주시 '뚝방실둘레길' 관광객 발길 이어져

### 산악회원 관광객 뚝방실둘레길 방문 5.6Km 코스,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영주시 이산면은 최근 수원시 서수원산악회 회원 39명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산면 뚝방실둘레길을 찾는 등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둘레길을 찾았다는 서수원 산악회는 30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산악회로 이날 산행과 함께 풍기 인삼시장 등을 둘러 쇼핑도 함께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큰 도움을 줬다.

이산면 뚝방실둘레길은 이산면 사무소 - 망월봉 - 약수봉 - 흑석고개 - 흑석사옛길 - 흑석사 - 제비봉 - 출렁다리 - 명화봉 - 묘봉 - 이산면치안센터로 이어지는 5.6Km의 코스로, 이어지는 국보·보물을 소장한

흑석사를 경유하는 둘레길이다.

둘레길은 최근 이어지는 관광객을 대비해 관광버스 주차장을 해소하고자 640㎡의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시행해 11월 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흑석고개 부분 둘레길이 중단되고, 다시 도로를 건너 흑석사로 이어진 둘레길에는 관광객의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고자 '(가칭)하늘다리'라는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이산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3000여명의 서명운동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에 있다.

이광열 이산면장은 "앞으로 이산면의 랜드마크인 '(가칭)하늘다리' 조성과 둘레길의 다양한 볼거리와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가 있는 옛 추억의 뚝방실을 상상하며 힐링하기 좋은 둘레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정승초 기자

# '나눔장터 수익금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 후원'

### 푸른문경21, 자원순환 실천 운동 조성 행사 수익금 230만 원 장학회에 기탁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모전공원 분수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2019년 자원사랑, 나눔장터' 행사 수익금 230만 원을 19일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문경시가 주최하고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연보호환경시협의회, 문경환경광공감사단, 사랑의녹색운동본부 등 여러 환경단체가 참여해 사용가능한 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문화와 자원순환 실천 분

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참여단체는 행사 수익금을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후원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또한, 자원사랑 나눔장터는 폐전전지와 종이팩을 휴지로 교환해주는 부대행사를 통해 재활용 품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김성호 위원장은 "나눔장터 행사를 통해 자원재활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원의 재활용과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경/정승초 기자

# 나눔과 배려, 2019 경북도 자원봉사대회 개최

### 우수 자원봉사자, 단체 포상 격려해 울진 '최우수상' 포항 '우수상'

경북도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9 경북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고윤환 문경시장, 박영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도내 자원봉사자 8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행복 경북을 만들 데 기여한 70만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300만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기관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참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9 경북도 자원봉사 대상'으로 경북도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6명(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2)과, 개인유공자 45명 및 14개 유공단체에게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대상의 영예를 안은 영천시 김광숙(68세, 여) 수상자는 여성자원봉사단 부회장으로 지난 17여년에 걸쳐 5,853시간 동안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교육문화센터에서 밀반찬, 무료급식, 고추장기부와 김장 나누기, 목욕봉사, 손마사지, 뜰 봉사 등 소외계층을 위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해례재단지역 피

해복지 활동, 환경정화 활동, 지역축제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진정한 나눔 실천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금상은 봉화군 전경원(59세, 여), 은상은 울진군 김우남(56세, 여), 김천시 배철호(58세, 남) 봉사자, 동상은 경산시 김향숙(59세, 여), 고령군 곽옥석(71세, 여) 봉사자가 따뜻한 봉사의 온정을 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군 자원봉사활동 평가에서는 봉사활동 참여율이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문경시와 영덕군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경산시와 울진군이 '최우수상', 포항시와 청도군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에 앞서 문경새재 드라마세트장 관람과 문경철로자전거를 체험한 후, 대회장에 마련된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인 '안녕캠페인' 홍보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자원봉사자들 간 소중한 정보들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원봉사는 너와 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자원봉사자의 노력 못지 않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동남권광역관광본부 해외 첫 관광홍보설명회 참가



##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관광자원 홍보, 해외 관광객 유치 서울 수도권 지역 오버투어리즘 해결·광역관광모델 구축

울산·부산·경남 동남권 3개 시·도  
로 구성된 동남권광역관광본부가 11  
월13~15일까지 동남아시아 관광객  
을 유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지역  
관광홍보 마케팅을 실시했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는 한국관광  
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와 함께 쿠알

라룸푸르와 폐낭여행사와 항공사 등  
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가졌다.  
11월13일 오전 쿠알라룸푸르에서  
버스로 5시간 거리에 있는 폐낭으로  
이동해 현지 30여 개 여행사를 대상  
으로 동남권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  
하는 설명회(PPT)와 여행사별 맞춤

형 상담회를 가지고, 11월15일에는  
다시 쿠알라룸푸르로 돌아와 여행사  
및 항공사 등 10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의 특  
색있는 관광자원을 설명하고 여행사  
별 홍보를 통해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는 이번 참가  
를 통해 울산·부산·경남의 관광자원  
을 집중 홍보하여 수도권 및 제주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지방에 분  
산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

화를 위해 노력했다.  
향후 본부에서는 동남권광역관광  
상품 구성에 관심이 높은 여행사에  
대해선 팸투어와 개별여행객이 우리  
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는 '케이-트  
래블 버스(2020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관광 상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서울시와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운영, 지방 명소를 1박 2일~6  
박 7일까지도 돌아 볼 수 있는 버스  
여행상품으로 편리한 교통과 숙박,  
통역 지원

김상돈 동남권광역관광본부장은  
"이번 한국관광홍보설명회는 광역관  
광본부설립 이후 첫 해외 홍보설명  
회로 3개 시도가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보완적 수단이  
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3개 시·도가 협력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며, "방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말레이시아를 대상  
으로 우리나라 제2경제권인 동남권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서  
울·제주지역에 편중된 해외관광객  
을 동남권으로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남권광역관광본부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를 광역관  
광체계로 구축해 관광자원을 유기적  
으로 연계개발하고 관광상품을 공동  
발굴하기 위해 올해 9월3일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경남/최만식 기자

## '서피랑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열린다

통영,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해 추진  
오는 23일 대체로운 프로그램 운영

'서피랑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  
리' 행사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 명정동 서피랑  
99계단 입구~총렬사 앞 도로에서  
열린다.

통영시가 주최하고 서피랑장터  
운영협의회, 비영리법인 예술단체  
살롱드피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  
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  
피랑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  
진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바터트  
리기, 제이킹팅 공연, 뽀뽀쇼 등 오  
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플라마켓, 어린이장  
터 및 아스팔트 놀이터, 각종 공연

및 체험버스 운영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정동 송례  
관~총렬사 구간의 차량통행을 전  
면 통제하며 당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은 총렬사 주차장과 총렬초  
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무료 이용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차량통제에 대  
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했으며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  
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답을 찾  
아가는 축제의 장이 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은행나무의 노란 물결  
로 가을의 낭만과 즐거움을 선사  
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량통제에 대한 시  
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다"고 전했다.

통영/최만식 기자

## 창원시 '탐조객 꿈을 이루는 철새먹이함'



주남저수지사업소, 업무협약 맺어  
수만 마리 철새 먹이 전달 가능해

창원시 주남저수지사업소는 '탐조  
객의 꿈을 이루는 철새먹이함'을 운  
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남저수지사업소와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은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하고 건강한 철새먹이 공  
급과 탐조객들의 자연 생태 체험 등  
을 위해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철  
새먹이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겨울 동안 주남을 찾는 재두루미,  
큰고니, 큰기러기 등 수만 마리의 철  
새들에게 탐조객이 구입한 먹이를  
전달하게 될 철새먹이함은 탐조대  
앞과 탐방객편의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다.

철새먹이인 범씨, 옥수수, 고구마  
등은 주남저수지협동조합에서 운  
영하는 탐방객편의센터에서 3~5,000  
원에 구입 가능하며 구입한 철새먹  
이는 꿈과 소망을 담아 철새먹이함

에 투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철새먹이함을 통한 먹  
이 공급으로 철새들은 주남저수지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며 보다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탐조객의  
꿈을 하늘에 전달할 것이다.

철새서식지는 원칙적으로 외부인  
의 출입이 통제되어 탐조객이 구입  
한 먹이는 환경감시원을 통해 철새  
에게 제공된다. 단, 직접 먹이주기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탐조객은  
먹이 구입 시 매월 1회 실시 예정인  
현장먹이주기 행사 참여 신청을 통  
해 직접 먹이주기 체험의 기회도 가  
질 수 있다.

강신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은 "주  
남의 농산물을 매개로 지역농민과  
겨울철새의 상생방안을 모색한 결과  
철새먹이함을 운영하게 됐다"며 "철  
새먹이함 이용 활성화로 주남저수  
지가 철새 및 탐조객, 지역농가 모두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창원/최만식 기자

## 경남도 업무추진비, 기업제로페이로 사용한다

행정안전부, 법인용 '기업제로페이' 개발  
18일부터 시범실시, 내년 시군 본격 도입

경남도가 19일 지자체 및 공공기  
관 업무추진비나 일반기업체 공금  
등을 법인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  
제할 수 있는 '기업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했다.

시범 서비스는 경남도 일부 부서  
(12개 실국본부 주무과, 회계과, 소  
상공인정책과) 업무추진비에 한해  
올 12월까지 실시하며, 경남신용보  
증재단,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출자출연기관과 도비를 지원받  
는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시범실시 기간 동안 기업제로페이  
를 처음 도입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고, 내  
년 본격적인 전국 도입 시에는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민간법인 등으로  
확산해 경남도 전역에 안착시킬 계  
획이다.

그간 경남도는 법인용 기업제로페  
이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  
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간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  
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지  
난 5월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시  
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중소  
벤처기업부·(재)한국간편결제진흥  
원·NH농협은행과 협업으로 4월 시  
스템 개발에 착수해 11월에 구축 완  
료 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  
좌 당 1명만 등록할 수 있는 개인용  
서비스만 제공해왔다. 이번에 도입  
하는 기업제로페이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기업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제로페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된다.

'기업제로페이'는 관리자 시스템  
(하브)을 통해 미리 사용자를 등록하  
고 결제할 금액 한도를 설정한다. 사  
용자는 기업제로페이 전용앱에 한도

금액이 생성되어 가맹점에서 개인용  
제로페이처럼 결제할 수 있다. 회계  
관리자는 각각의 결제 건마다 사용  
자 앱에 결제금액 한도를 등록해 회  
계사고를 방지한다.

이날 김 지사는 그동안 시행해온  
제로페이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직  
접 들었으며, 기업제로페이 홍보와  
함께 간편하고 실용성 있는 제로페  
이 서비스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기업제로페이를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 등을 적  
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경남사랑상  
품권 발행으로 도내 자금순환을 늘  
리고 지역상권이 활력을 찾는 데 도  
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기업제로페  
이 도입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제로페이 활성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참  
여와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 의령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의령군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경남  
형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는 경남  
도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대상  
지인 창원시, 의령군, 고성군, 북지부  
선도사업 지역인 김해시 및 행복탄하  
에코포, SK텔레콤 등이 협업해 추진하  
는 민간 융합 프로젝트 사업이다.

군은 통합 돌봄 시범사업 대상지인  
부림면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취  
약계층 120가구에 인공지능스피커를  
지난 10월 설치완료 했으며 11월 18  
일 경남도청에서 개최하는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 출범식에 참석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현재 독거노  
인 돌봄 체계는 1명의 생활관리사가  
25명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으나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많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최만식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천년왕도  
경주

남산지구  
대릉원지구  
산성지구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불국사

양동마을

소통하는 의정, 시민중심의 의회  
"경주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http://gicouncil.or.kr

석굴암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망하는 평화통일포럼 열려

### ‘한반도 정세 동향·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망’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과 머리 맞대



전주시가 정확한 한반도 정세 파악을 통해 향후 추진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망'을 주제로 한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성희 전북거래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북미관계 동향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남북의 공동가치, 김정은 체제의 성격 그리고 그 미래는, 개성공단, 한반도평화와 시민의 역할, 남북 대학생, 남북교류를 준비하자 주제

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북미관계 동향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기초발제에 나선 안문석 전북대학교 교수는 북미와 남북관계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관계의 선제적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미국·북한 설득 등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남북의 공동가치'를 주제로 발제한 김창희 전북대학교 교수는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전북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성격 그리고 그 미래는'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권력강화, 정통성 추구, 대중민정체, 핵·경제병진정책 등의 김정은 체제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 북·미관계의 긴장된 줄다리기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향후 전망을 내다봤다. 이 교수는 "어렵게 형성된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기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협상의 중재자 역할 등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태두 전북지역 개성공단 입주업체 협의회장은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편익을 증명하는 우리의 산 경협으로 다음을 포용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장이었다"는 경험담을 소개해 청중들의 공감대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방용승 전북거래하나 공동대표는 "70년을 넘게 이어온 분단과 냉전의 질서가 부서지고 새로운 화해와 평화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며 서로 적대시했던 관념을 벗고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며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임정우 학생은 "이러한 자리 또한 통일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게 됐다"며 "유엔총회 참여 활동기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전하고 대학생 남북 교류의 꿈이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최하은 기자

# 남원에춘 관광형 시장 '꽃담장' 성공적 안착



### 사람과 사람 이어주는 관광형 플르마켓 16회, 매출액 1억 원, 6만 여명 다녀가

남원시가 지난 4월부터 남원에춘 상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 관광형 시장 '꽃담장'이 매출액 1억여 원을 달성하며 안착에 성공했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문화 플르마켓 '꽃담장'은 벼룩시장과 자유시장에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문화융복합형 시장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원에춘 일원에서 총 16회를 진행, 총 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6만 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다.

'꽃담장'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광형 플르마켓 슬로건 담겨 참여자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으로 펼쳐져, 셀러들과 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건강관리체학과 꽃담열차 운영, 연계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 '변사극 춘향전'은 이번엔 새롭게 도입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짜임새 있게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이와 함께 누구나 참여,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내년에 기획형 테마행사 도입, 관광형 시장인 꽃담장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상설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과 함께 역량을 모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남원에춘에서 추진된 이번 꽃담장은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관한루원과 구 도심을 연결하는 거점지대로 작용, 6만명이 다녀갈 수 있었다"며 "이번 구도심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도 효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남원/이남출 기자

# 2019년도 '숲가꾸기 기간 1일 체험 행사' 가져

### 남원시, 조림지에 대한 집중 관리

남원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숲가꾸기 기간에 맞추어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난 봄철에 심은 조림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지난 14일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녹지과, 산림조합, 산림사업 근로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봄철에 식재한 편백나무 조림지 1.2ha에 고형복합 비료주기 및 조림목 주변의 맹

아 등 생장에 피해를 주는 방해요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수 있도록 했다.

산림녹지과장은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 및 줄기의 활착이 잘 되어야만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등 나무의 나이에 맞는 작업을 통해 한 구루의 나무도 정성껏 가꾸어 우리 숲을 건강한 산림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이남출 기자

# 담양군, 가사문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



### 12개 읍면 게이트볼장 준공 완료 여가 생활과 군민 건강증진 기대

담양군은 지난 15일 가사문학면 연천리 게이트볼장 일원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유관 기관·사회단체 및 생활체육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주민의 오랜 바람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된 체육시설로 건축면적 486㎡

에 인조잔디구장과 사무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이번 준공으로 12개 읍면 전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조성돼 군민의 다양한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준공돼 기쁘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게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오홍근 기자

# 강진군, 지역아동 '어울림한마당' 개최 호응 얻어

### 드림스타트 & 지역아동 꿈의 무대 돌봄기관 종사자 등 400명 참석

지난 16일 제8회 드림스타트 & 지역아동 꿈의 무대 '어울림한마당'행사가 강진국민체육센터 제 1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학부모와 지역아동 돌봄기관 종사자 등 400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강진 생명나무아동센터 댄스동아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많은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드림스타트 & 지역아동 연계 꿈의 무대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클로빌스타트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운 프로그램들

발표하는 행사이다. 2018년까지 7회차 행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체육행사 형식으로 변경해 추진했다.

행사를 주관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재숙 회장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제대로 즐기고 놀 수 있는 특별한 날을 선물하고 싶어 올해는 체육행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행복화합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기 주민복지실장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 종사자들간 어울림 행사를 통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강진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진/김효관 기자

# 영광군,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사업 신청 접수

### 토양 비옥도 증진·토양환경 보전해 유기질비료 1,700원/20kg 등 지원

영광군은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오는 12월 4일까지 2020년도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유기질비료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 1,700원/20kg, 부숙유기질은 등급에 따라 1,400 ~1,700원/20kg으로 정액 지원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적정 시기에 공급을 받아 살포해야 하며 10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는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어 다른 농가에 재배정되게 된다.

또한, 선정된 농가가 배정된 유기질비료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 농지소재지 농협

에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지원 시 페널티가 부과된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이번 해 공급대상지인 영광읍, 백수읍, 군남면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3년 1주기로 살포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일괄 신청 받았으나 신청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했거나 농업경영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 및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도 전비종 및 인상지원하고 있어 많은 농가가 공동살포에 동참해 적정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영만 기자

# 무르익어가는 보성의 가을, 파티와 함께 즐겨보세요

### 보성군, 푸드 큐레이터와 함께 새로운 관광 콘텐츠 선배 관심

보성군은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이틀간 '푸드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보성만추 미식여행'을 선보인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보성만추 미식여행'은 소설 태백산맥 배경지 현부자지에서 펼쳐지는 웰컴파티를 시작으로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별교 근대문화유산 투어, 고택 정원에서 즐기는 녹돈 바비큐와 지역 술 페어링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확실하게 가는 여행 시장에서 보성군이 새롭게 선보이는 '관광 지역화 전략'이 주목된다. 보성군은 지역의 이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절 식재료와 특산품을 맛보는 미식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차별화된 여행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차관관 여행뿐만 아니라 소설 태백산맥을 품고 있는 별교 근대문화유산과 남해안 해양 관광 거점 울포해수욕장센터 등 여행지로서 보성이 가진 강점을 한껏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관광 상품 개발로 보성군은 미식관광 성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히며 "별교요막, 득량만낙지, 보성기위, 녹돈, 전통주 등 계절별, 식재료별로 다

# 장성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만든 '가을 추억'

###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여행 1박 2일 서울 나들이 '큰 호응'

장성군이 지역 장애인과 가족 9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여행을 추진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여행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들에게 역사와 문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탐방에 참여한 장애인과 가족들은 지난 14일부터 1박 이틀간 뭇

데타워 전망대와 코엑스 아쿠아리움, 국회의사당, 경복궁 등지로 가을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마친 한 장애인은 "단풍이 만발한 가을에 가족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하니 기분이 좋았다"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탐방이 장애인과 가족 모두에게 소통과 공감, 마음을 치료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보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박태지 기자

# 영광, 아열대과수 재배 기술교육

영광군은 오는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애플망고 재배농가 및 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애플망고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열대 과수의 재배동향과 전망, 애플망고의 재배 기술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관내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방문해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난 2016년부터 애플망고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개 농가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다.

이는 전남 재배면적 7.9ha의 75%에 해당되며 향후 영광이 망고의 주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대과일인 망고는 최근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농가에 고소득을 안겨주는 작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내산 망고시장이 점차 자리를 넓혀가면서 망고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년 도 공모사업인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을 통해 2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며 시장의 변동성에 발맞춰 영광이 망고주산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김영만 기자

양한 고품격의 미식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향후에 소개될 또 다른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보성/김영만 기자



# 2019 강진청자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 개최한다

###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16개팀 400여 명 참가 야구형 뉴스포츠로서 공 티 위에 올려놓고 쳐



'2019 강진청자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 및 청자구장에서 열린다.

강진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티볼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전국 5개 시·도에서 16개팀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티볼은 야구형 뉴스포츠로서 공을 티 위에 올려놓고 치는 것이 특징이다. 야구장 모양의 경기장에서 던지고 치고 달리는 즐거움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교 2학년 체육교과 과정에도 정식 도입되었다. 정규 체육수업은 물론 방과 후 티볼교실 티볼클럽 등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팀이 참가해 예선 조별 풀리그전을 거쳐 결승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한편 2019년 제4회 한국초등학교 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또한 강진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군은 관광지과 먹거리, 지역축제 등을 집중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2019 강진청자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에 참가하신 16개 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얻고 돌아가길 바란다. 더불어 강진에서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갖고 강진군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효관 기자**

## 전주김치문화관, 가을·겨울 계절김치 아카데미



전주음식 명가 등 강사로 참여 계절별 특색김치 소개 및 체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2019 가을·겨울 계절김치 아카데미'가 최근 전주한옥마을 김치문화관에서 음식관련 종사자, 관광객, 전주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김치산업화사업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2019 가을·겨울 계절김치 아카데미'는 전주김치문화관을 거점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우수한 김치문화를 홍보하고 한식의 근간인 김치의 위상과 전주 김치문화 확산을 위함이다. **전주/최하은 기자**

특히 전주음식 명가 등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전주에서 생산되는 계절의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활용해, 전주 김치명가와 총 6가지의 다양한 가을과 겨울철의 계절김치 담는 비법을 전수하는 등 참가자들의 만족을 높였다. 명품김치산업화 사업단 관계자는 "저가의 중국산 김치에 대응해 지역산 안심먹거리를 활용한 전주 명품김치의 산업화를 위해 전주김치문화관을 거점으로 체험·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전주 명품김치의 위상제고 및 브랜드화, 나아가 전주한식의 세계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하은 기자**

## 남원시 '제1회 금동 동민의 날' 성황리에 마쳐

### 금동발전협, 동민 모두가 주인공 여러 공연단체 재능기부로 축제

남원시 금동 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남원시 금동에서 후원한 '제1회 금동 동민의 날' 행사가 지난 16일 토요일 남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주민들과 이환주 남원시장, 윤지홍 남원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시름을 잠시 잊고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지난 10월 26일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금동농

악단의 신명나는 터울림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자치사랑방 수강생들의 발표회, 전라북도 신나는 예술버스단의 초청공연으로 이어졌고 동민들의 노래자랑이 행운권 주점과 함께 진행됐다. 이밖에도 색소폰과 국악 공연, 장구 난타 등 관내 여러 공연단체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 축하공연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흥을 한껏 돋워줬다. 금동 발전협의회장은 "오늘의 행사가 금동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금동, 살기 좋은 금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이남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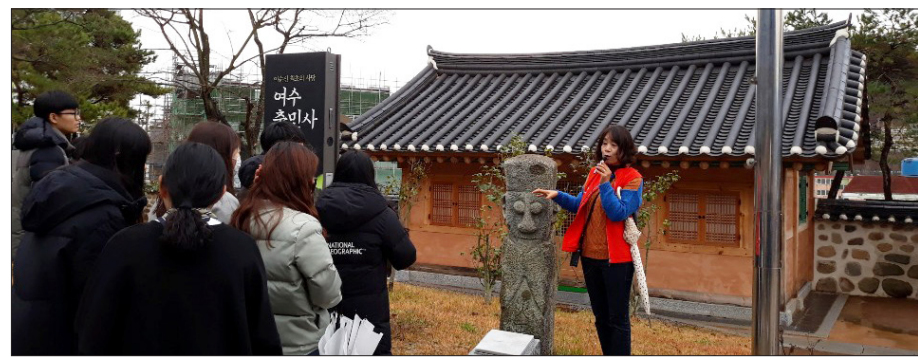
## 남원시, 출산과 바른 먹거리 체험전 운영

아이날이 좋은 세상 남원시운동본부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내 몸은 소중한 출산과 바른 먹거리 체험전"을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남원YWCA 체험관에서 운영한다. 이번 체험전에서는 참가자들의 연령과 신체의 성장속도에 따라 다양한 시각각적 도구를 활용하는 체험 형태의 출산체험과 바른먹거리 체험전으로 알기 쉽고 친근하게 우리 몸의 이름을 설명하고 태아모형과 임신체험

복착용, 자궁모형 속에 자궁방 탐침을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껴보는 성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지 자기관리능력을 높이도록 돕고 남녀의 차이와 몸의 변화, 임신·출산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성폭력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성폭력 통합상담소와 같이 공동 진행하게 된다. **남원/이남출 기자**

## 여수시, 수능 치른 고3 대상 문화행사 운영

### 역사문화답사, 마음성장 심리특강 등 아쿠아플라넷 등 관광시설 50% 할인



여수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여수역사문화답사를 진행한 다. 지역 9개 고등학교 63학급 1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란한 역사, 아름다운 여수'를 주제로 충민사, 고소대, 전소, 여순사건 위령비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수험기간을 보낸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마음성장 심리특강'도 준비했다. 11월 중 전문 강사가 고3 학급을 찾아가 대학과 사회생활 적응, 자존감 향상을 주제로 심리학 특강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자녀 뒷바라지로 애쓴 학부모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일 저녁 7시 여수문화홀에서 '학부모 감성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이날 강사로 나서는 교육 전문가 조벽 교수와 최성에 박사는 자녀 양육과 교육 방법을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한다. 지역 관광시설업체들의 수험생 할인 이벤트도 이어진다. 한화아쿠아

플라넷, 미남크루즈, 해양레일바이크, 예술랜드, 스카이플라이, 푸른마리나요트, 빅오쇼 등에 수험표를 제시하면 50%할인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박규국·김상면 기자**

## 영광, 쌀활용 가공식품 교육 호응

영광군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쌀 활용 가공식품 교육을 총 4회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다양한 먹거리 증가로 인해 매년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쌀을 활용한 디저트류와 같은 관련 가공식품 개발로 우리 쌀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쌀 중심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 및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가정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쌀 월병, 플레인 스킨 등 7종을 직접 만드는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참석자 모두에게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직접 쌀을 활용해 디저트류를 만들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맛있어 집에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영안 기자**

## 전주시 '토닥토닥, 힘들었을 너를 향한 발걸음'

### 청소년쉼터연합, 찾아가는 거리상담 진행

전주시청소년쉼터연합회는 최근 전주시·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라북도유해환경감시단·전주완경찰서와 함께 전주중앙살림광장에서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수능 맞이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진행했다.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주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로 이뤄진 전주시청소년쉼터연합회는 가정 해체 및 가정의 기능약화,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가출상태이거나 일정한 처처가 없어 각종 비행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9세

부터 24세 청소년들을 발견해 보호·선도하는 청소년복지시설들로 이뤄졌다. 정진해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은 이날 "앞으로도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세상에 버려졌다는 느낌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의 인식처, 오후마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위기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이처럼 사회가 함께 돕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최하은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어촌**

**KFP**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 포천 '채움, 나눔 그리고 기쁨' 모금생방송 개최

## 경기북부사랑의열매와 협력 매년 행사 가져 도움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큰 힘

경기 포천시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포천시체육관에서 '채움, 나눔 그리고 기쁨'이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포천시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을 개최한다.

올해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은 지난 2014년 처음 열린 모금 방송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다.

포천시는 2014년 첫 모금 방송에서 기부금 약 1억5,000만 원을 받아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사용했다. 이번 모금 방송 역시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포천시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CJ헬로TV나라방송이 공동주관하고 포천시와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후원한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국내 유일의 법정모금단체다.

포천시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2월 10일까지를 이웃돕기 사전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해 관내 각계각층에 홍보하고 있다.

특히 사전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 중 100명을 선정해 인터뷰 촬영을 진행한다. 인터뷰는 '포천을 따뜻하게 빛낸 100인의 기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제작된다. 영상은 생방송 당일을 포함해 1개월간 CJ헬로TV나라방송에 송출된다.

이번 방송의 목표 모금액은 2억 원이며 방송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포천시 복지소외계층의 생활비·의료비·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도 활용된다.

이번 방송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민형 포천시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주요기업 대표, 단체장, 개인기부자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미스트롯 공소원, 가수 양하영이 축하공연을 펼치며 포천시립합창단과 청소년댄스팀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인다.

포천/김영근 기자

## 양주 회천3동 김장나눔 행사 진행

경기 양주시 회천3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19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회천3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회원까지 약 60여 명이 참여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김치를 담가 기초수급자, 저소득장애인가정 등 300여 가구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행사를 추진한 박순희 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먹거리 걱정으로 힘들어 하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승주 회천3동장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과 적극적인 협조로 즐겁게 행사에 참여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주/김영근 기자

## 안성시, 사랑듬뿍 기쁨두배 김장나눔 전달식

### 공도읍지역사회보장협, 김장김치 이웃과 나누는 행사로 의미 더해

경기 안성시 공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사랑듬뿍, 기쁨두배 김장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안성시 공도읍 여러 단체와 봉사자들이 함께 집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이웃과 나누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도읍이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 농촌지도자회 등의 단체에서 참여해 김장김치 170박스를 150가구에 전달했다.

허근 민간위원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몸도 마음도 더 추워지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역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김장김치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3년째 진행하는 본 행사에 따뜻한 손길을 더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종도 공도읍장은 "공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평소에도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보살피는데 솔선수범해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도 추워지는 겨울철에 김장김치나누기 봉사에 뜻을 모아 줘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읍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살아가는 정감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남시현 기자



## 담양군지역사회보장협, 어르신들께 밝은 빛을

### 50여 가정 방문해 LED 전등 설치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 얼굴 활짝

전남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는 최근 관내 지역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LED 전등과 리모컨 설치 작업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 가정 50여 가구를 방문해 오래된 전등을 새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편리하게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리모컨을 설치했다.

대상자 가정의 어르신은 "오래전 전기 작업 후 어두운줄 모르고 생활했는데 등을 교체하고 보니 환한 세상을 보는듯해 아주 좋다"며 "편리한 리모컨까지 함께 설치해주어 고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윤영진 월산면장은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양홍근 기자

## 영주,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개최



### 지역대학 장학금 100만 원 상향 전년대비 100% 늘려 심의 의결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장욱현)에서는 지난 13일,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장학사업과 장학회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0년도 장학회 예산안,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 변경, 장학회 임원 취임승인 신청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장학금을 전년 대비 100%가 늘어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 2008년 1월에 설립된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금까지 총 1,810명의 학생에게 20억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장욱현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그동안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액이 전년대비 두 배 늘어난 100만원이 되며,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 연말 이웃돕기 물품



### 돼지고기 190박스 기탁, '훈훈한 정 나눠 저소득가정 19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

전남 구례군은 최근 군청 현관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박건용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장, 전창동 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와 연말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한 물품은 돼지고기 190박스(box/2kg)로 대한한돈협회 구례군 지부는 해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올해에도 군에 기탁했다.

박건용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장은 "동절기로 추운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힘든 경제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의 돼지고기를 기탁 해 줘서 감사드린다"며 "이런 기부문화가 사회전반에 퍼져 이웃과 함께하고 따뜻한 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용만 기자

## 구례, 위텍코퍼레이션 아동용 황사마스크 전달

### "나눔 활동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전남 구례군은 19일 위텍코퍼레이션(주)(대표 이신재)가 소아용 황사마스크 5,000개(이백오십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신재 위텍코퍼레이션(주)대표는 구례 토지면 출신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찍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자수성가하여 고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이 어려워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황사마스크를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위텍코퍼레이션(주)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관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위텍코퍼레이션(주)에서 전달한 황사마스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희망2020 나눔캠페인을 통해 구례군에 있는 6개소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례/이용만 기자

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위텍코퍼레이션(주)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관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위텍코퍼레이션(주)에서 전달한 황사마스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희망2020 나눔캠페인을 통해 구례군에 있는 6개소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례/이용만 기자

## 장흥군 관산읍, 짝꿍 손잡고 '행복 나들이'

###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 어르신·아동 54명 국립생태원 떠나

전남 장흥군 관산읍은 최근 관내 지역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54명이 짝꿍이 돼 서천국립생태원으로 행복나들이를 떠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나들이는 정남진노인복지재단 공모사업 선정과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떠난 이번 여행에서는 '일일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되어 국립생태원에서 자연 친화적 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동물들을 둘러봤다.

행사에 참여한 이복순 관산읍여성단체 회장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이번 나들이를 통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관산읍장은 "어르신과 아동센터 아동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온을 맞고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길 바란다"며 "세대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길 기자

## 여수 삼일중학교 봉사단, 김장김치 나눔 '훈훈'

### 재학생·졸업생 40여 명 참여 다문화·저소득 가정 20세대

전남 여수시 삼일중학교 재학생 봉사단(처음처럼 삼일처럼 모자봉사단)과 졸업생 봉사단(The 삼일)이 지난 16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회원 40여 명은 직접 담은 김치를 지역 다문화 가족과 저소득 가정 20세대에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처음처럼 삼일처럼 모자봉사단 이현숙 단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 단원이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철 소라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행사

에 참여해 준 봉사자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정이 넘치는 소라면을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일중학교 재학생 봉사단과 졸업생 봉사단은 경찰활동, 저소득 후원 물품 전달, 복지시설 위문, 공연활동 재능기부 등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여수/박규김영민 기자



## 지역소식

### 연천 어린나무겨울나기 행사 실시



경기 연천군 산림복지과에서는 11월 숲가꾸기의 달을 맞아 어린나무겨울나기 행사를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봄 식목일행사로 군민들이 심은 소중한 묘목들을 잘 보살피고 소중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무원, 산림조합임직원, 산림관련 종사자 등 총 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자작나무 비료주기, 고사목제거, 산지정화활동 등을 펼쳤다.

연천군은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조림지를 대상으로 어린나무가꾸기, 비료주기, 덩굴제거작업 등을 펼쳐 건강한 숲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산림활동으로 발생한 부산물들을 활용해 12월에는 소외계층 사랑의 딸감나누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천/김영근 기자

### 용인 정보소외계층PC214대 보급

경기 용인시는 올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PC' 214대를 보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랑의 PC'는 시가 보유한 중고 PC를 정비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소외계층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사랑의 PC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134대를, 아동복지시설, 요양원 등에 72대를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165대를 보급했다.

용인/남시현 기자



### 의정부 마포숯배지갈비 쌀 전달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마포숯배지갈비의 유광희 대표는 겨울을 맞아 쌀20kg 12포를 가능동 주민센터에 기탁함으로써 '100일간 사랑릴레

이 운동'에 동참했다.

유광희 대표는 가능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매년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돕기에 참여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유광희 대표는 "이번에 전달된 쌀이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규 가능동장은 "매년 이렇게 이웃사랑 실천에 참여해 주시는 유광희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부물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의정부, 겨울맞이 이불세탁서비스

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은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최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겨울을 맞아 '우리동네 좋은이웃' 홈-클리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불세탁서비스를 통해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의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건조해 다시 대상자 집까지 배수했다.

김근정 호원권역국장은 "앞으로도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원봉사자 및 동 단체 중심으로 관내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가평군청 육우회 연탄봉사 활동

가평군청 육우회는 최근 북면과 상면 소외계층 2가구에 가구당 300장씩 총 6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가평군청 육우회는 가평군청 6급들의 모임으로 직장내에서는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별 봉사활동으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줬다.

아울러 가평군청 육우회는 지난 5월 12일 가평읍 소외계층 1가구에 대해 청소봉사 활동 등을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가평군청 육우회 회장 남경호 감사팀장은 "이번 연탄봉사를 통해 따뜻하고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육우회에서 지속적인 지역 봉사활동으로 군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최민석 기자







## 독도, 일본주장 왜 허위인가? II

#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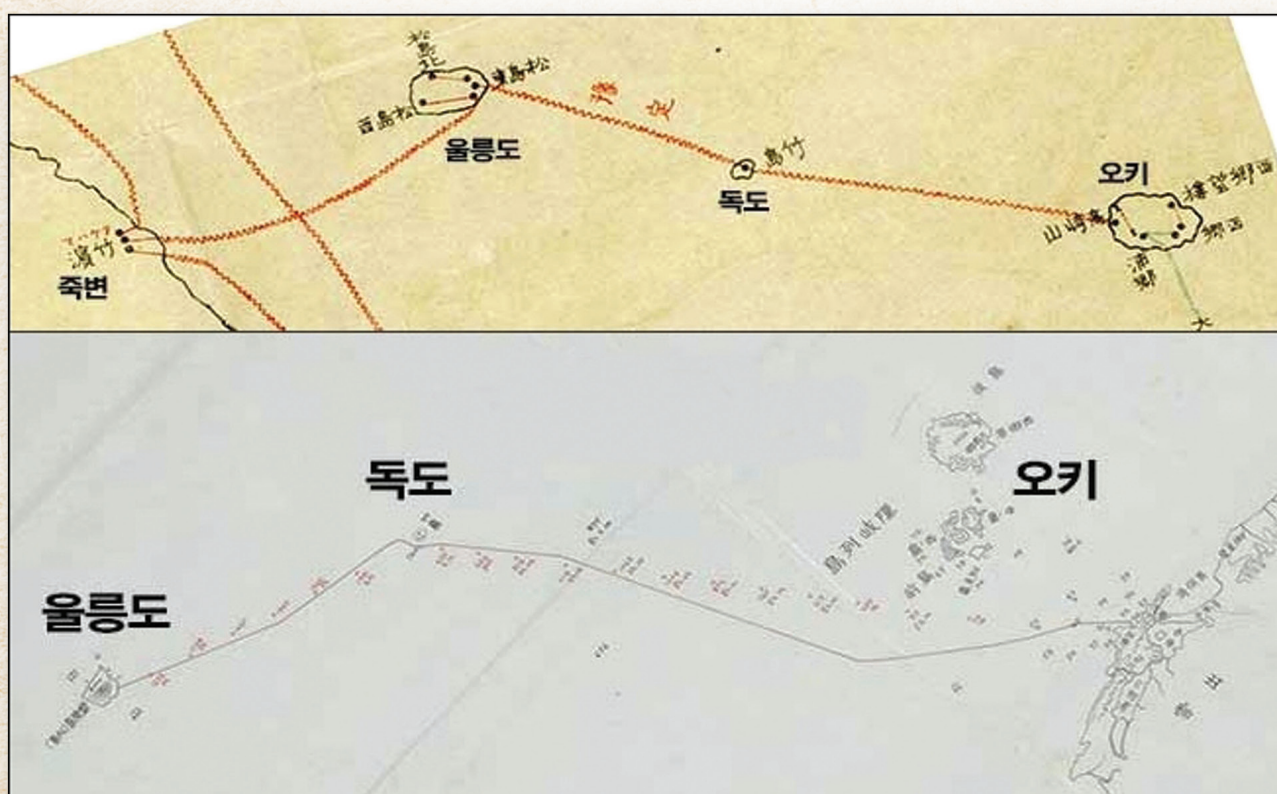
## 독도가 일본 침략

### 첫 희생물이 된 경위는 이렇다



독도 가설 망루건설물 배치도

※망루는 현 독도경비대 막사, 감시소는 현 독도 등대자리



해저전선 부설도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로 한다. 일본 해군은 1904년 9월, 1905년 1월과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군함을 보내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러시아 군함이 독도 부근에 표박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일본 해군은 7월 25일에 망루 공사를 시작해 8월 19일부터 망루를 가동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독도-오키(隱岐)를 잇는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공사를 추진했으며, 독도에는 관측병 등 4명의 군인이 체류했다. 시마네현은 망루 설치 과정에서 강치잡이업자 나카이 요사부로를 앞세워 독도를 무단 편입했다. 망루요원은 러일전쟁 종전 후 10월 24일 철수했으며, 해저케이블은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운용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이미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隨機)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